

성통합 초기 단계에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김 광은
공군사관학교

이 연구는 남성 중심의 사관학교 조직에 여생도 입교로 인한 성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남녀 생도의 성역할 정체감 파악 및 성통합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연구 결과 생도들은 성역할 정체감 면에서 남녀 차이 없이 남성적인 정체감이 우세하였다. 여자 생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가장 비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관리자로서의 여성이나 군 조직내 여성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비록 여생도와 남생도 간에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남생도들은 남자 대학생들보다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이루어질 4년간의 성통합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보았을 때 군대 조직은 남성 중심의, 남성을 위한, 남성 문화가 지배적인 곳이었으며,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용자, 1994; 탁진국, 1995)에서도 전형적인 남성 직업으로서 '직업 군인'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 조직에 여성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으로 보아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이다(Holm, 1992). 우리나라는 광복군에 여성이 참여한 기록이 있으나(여성신문, 1995), 공식적인 참

여는 한국전이 발발한 195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여군학교, 1996).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여군의 역할은 남군의 역할을 보조하는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에 부합되는 간호나 통신, 행정 같은 분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권운동의 여파는 군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여군의 활동 영역 및 영향력 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의 경우 교육과 진로의 평등한 기회 제

공 요구에 따라 삼군 사관학교의 문이 1976년 여성에게도 개방되었고(Stiehm, 1981), 1972년 첫 여군 장성 배출 이래 현재 19명의 장군이 임명되어 있으며, 전 미군 병력의 10~15%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여성신문, 1996). 이러한 여군들은 지난 걸프전에서 보았듯이 전투 헬리콥터의 조종이나 미사일 기지 담당 등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을 극복하는 실증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 중심의 군대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 군에서 직업 군으로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1.79%에 불과하고 군대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군에 단 한명의 여군도 보임되어 있지 않아 그 영향력 면에서는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군대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합법적인 권력과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 인력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군대내에서도 1990년에 특수 병과이던 여군을 철폐하고 거의 전 영역에 남군과 동일하게 여군의 진로를 확장하여 전방 부대의 소대장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넘어서는 다양한 여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997년에는 삼군 사관학교 중 최초로 공군사관학교의 문이 여성에게도 개방되었고, 1998년에는 육사, 1999년에는 해사도 여성 입학 허용할 예정이어서 군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달리 학부 수준의 학문적 소양 이외에도 강인한 신체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초급 지휘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도들의 생활은 주말을 제외한 전 시간을 일정한 통제하에 함께 하면서 생도로서의 규범과 행동을 익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의 출현은 단순히 남자만의 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달라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관학교에서 남녀가 함께 하는 교육 형태를 '공학(co-education)'이라는 용어보다는 '성통합(sex-integrated)'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오필환 · 김광은, 1997). 일반적으로 '통합'이라는 용어는 '분리'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문화나 생활, 그리고 구성원의 수나 권력 면에서 다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두 집단이 함께 공존하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합의 예는 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통합 학급 운영이나 인종간의 분리가 아닌 통합 정책이다. 이러한 통합의 기본 가정은 서로 다른 차이를 '차별'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으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상이성이 빛나는 시너지를 최대한 살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정원의 10%'이내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사관학교 설치법 제 3조) 남성과 동일한 교육기회와 진로를 보장하고 있는 사관학교의 여성 입학 허용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학적 의미뿐 아니라 전통적인 성역할을 극복하려는 여성들의 특성 및 남성 다수 집단에서 소수 여성으로서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심리학적 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배경에서 앞으로 4년간의 사관학교 남녀 성통합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사관학교 성통합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남녀 생도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의 성격 및 행동특성 차원에서 그 사회가 전통적으로 규정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하여 그 특성을 개인이 동일시하거나 개인의 성격 및 행동특성으로 내면화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임용자, 1994), 한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은 진로선택이나 생활적응과 같은 광범위한 면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을 파악하는 것은 생도 집단의 성격 특성 이해 뿐 아니라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극복하는 '역할 혁신자'로서 여성도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일차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 정체감이 하나의 성격 특성이라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성통합 장면에서 여성들에 대한 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 매개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 사회, 직업 장면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검사 뿐 아니라 사관학교 여생도는 군내 지휘관으로 양성된다는 점에서 관리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태도와 군조직내 여성에 대한 태도를 부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성통합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성통합,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태도

군조직의 상대적 폐쇄성 및 이 조직에 여성의 본격적 참여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내 성통합이나 성역할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일반 조직의 성통합 장면에서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별히 사관학교의 사례는 미국 공사의 첫 여자 생도의 입학시 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종단 연구를 실시한 DeFleur 등의 연구(1985)와 미 공사 여자생도의 입교과정을 자세히 기술한 Stiehm의 연구(1981)를 주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성역할 정체감은 진로선택과 상관이 있어 성유형화된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로 선택에서도 전통적인 성역할에 부합되는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카플란·세드니, 198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졸업 후 직업 군인의 진로가 보장되는 사관학교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남성은 남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실제 이러한 경향은 미국 공사생도

들을 대상으로 한 Bem의 성역할 검사에서 미 공사의 남생도들은 남성적인 성정체감을 갖고 있는 비율이 동년배의 일반 대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사관학교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경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다수 전공을 선택하거나 이공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여성은 전형적인 여성의 성역할에 부합되는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보다 남성적인 성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Yanico, 1978). 또한 남성 다수의 조직에서 최고위 간부로 승진한 여성들과의 면접을 통한 연구 결과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대부분은 몸은 여성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남성과 동일시되는 불일치를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헤니그·자딤, 1977). 올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여생도들의 경우도 흥미나 관심 면에서 고정관념적인 여성들의 취향과는 구별되는 항공기 모형 제작이나 비행 등 남성적인 활동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었다(김진호, 1997).

이렇게 사관학교를 선택한 남성과 여성이 남성적 정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군조직이 고정관념적인 남성성의 주요 특징인 '용기', '공격성', '리더쉽', '권위주의', '일사불란한 명령체계' 등 남성적인 규범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남성성 지향의 정체감이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된 태도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데에 있다. 말하자면 남성적인 성유형화된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모든 영역에서 전통적인 태도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이 높다(방희정, 1996; 카플란·세드니, 1989). 이는 미 공사 생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 공사의 남생도는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조사와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남학생의 비해 훨씬 전통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며, 이들의 졸업 후 결혼과 가족의 패턴에서도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전통적인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fleur et al, 1985).

반면 남성적인 성향을 띤 여성들은 보통 강한 성취동기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양육과정에서도 전통적인 여성 역할 학습보다는 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활동 면에서 거의 남성과 동일하게 길러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고정관념적인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인다. 실제 미 공사의 여생도는 남생도에게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 일반 대학의 남녀 대학생보다 여성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남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이 우세한 남녀 양집단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갖는 상이한 역할 기대 및 태도는 사관학교의 초기 성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여생도들의 생활 적응을 더디게 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DeFleur et al, 1985)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사관학교 장면 뿐 아니라 일반 조직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남성 위주의 전문직이나 최고위직을 향해 뛰어든 많은 여성들은 숫적인 열세와 기존하고 있는 남성 중심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해 조직을 이탈하거나 처음에 이들에게 기대했던 혁신적인 역할과는 다르게 '튀지 않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남성집단에 동화된다는 점을 Kanter(1977)는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남녀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남녀간의 접촉 기회가 많을수록, 그리고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을수록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점이다. 실제 미 공사의 남녀 생도들에게 2년 간격으로 여성의 성역할이나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관학교 여성에 대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조사했을

때 여생도들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남생도들의 태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남성에게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군사훈련 등을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 여생도들을 '여성'이 아닌 '동지'로써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남성의 군대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연구한 조성숙의 논문(1997)에서도 정결과 신념을 지닌 여군 소대장과의 병영생활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하는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막 성통합의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 사관학교에 남녀 생도의 태도변화와 같은 응용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 많은 시사를 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성통합 초기 단계의 문제 진단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 가. 사관학교 남녀 생도의 성역할 정체감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 성역할 정체감 분포는 남녀 생도간, 그리고 비교집단(대학생)과 차이가 있는가
- 나. 사관생도는 여성의 성역할, 관리자로서의 여성, 군조직 여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 이러한 태도는 생도와 대학생, 남성과 여성,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다. 본연구에서 조사한 성역할 정체감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사관학교 성통합 장면에 줄 수 있는 시사는 무엇인가

방법

대상

올해 처음으로 여생도 입교가 허용된 공군사관학교의 1학년 생도 2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학년 생도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84명 여자 19명으로 여생도의 비율은 남생도의 약 10분의 1에 해당된다. 비교 집단으로 B대학과 C대학의 남학생 99명과 여학생 101명의 총 200명을 조사에 참여시켰다. 이들은 교양과정으로 심리학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로 대부분 1, 2학년생들이다.

도구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임용자(1994)가 개발한 성역할 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Spence와 Helmreich(1978)의 PAQ(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알아볼 수 있는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7에서 .90이다.

성역할태도는 Spence와 Helmreich(1978)의 단축형 AWS(Attitudes Toward Women Scale)와 국내에서 개발된 검사를 토대로 임용자(1994)가 제작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사회적 권리와 자유, 가정의 권위적 구조, 여성적 성격, 직업 능력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으로 총 21문항의 리커트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비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낸다. 이 검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90이다.

관리자로서 여성 역할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Terborg 등(1977)이 제작한 WMS(Women as Manager)(Defleur et al. 1985에서 재인용)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조직장면에서 여성의 생리적, 심리적 특징으로 인한 관리적 역할의 제한 및 특징에 대한 태도를 묻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관생도 7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8로 나타났다.

군조직내 여성 인력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검사는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는 사관학교 여생도에 대한 태도 및 여성 지휘관에 대한 태도, 전투 장면에서 여군 역할 등에 대한 태도들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내 지휘관 및 장교들을 통한 타당도 검증 및 사관생도 7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예비검사 결과 이 검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4로 나타났다.

절차

본 조사가 실시되기 전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한 태도와 군조직내 여성 인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 제작 과정이 선행되었다.

군조직 내 여성 인력에 대한 태도 검사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 문헌 연구 및 실제 여군 장교를 포함한 관련 장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문항 작성시 참고하였다. 일차 작성된 56개의 문항중 1개 중대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결과 최종 26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제작하였다.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한 태도 검사는 일차 번안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 집단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정식으로 사관학교를 입학하기 전 군사훈련을 위주로 한 5주간의 가입교육훈련을 통해 남녀 생도가 함께 군대 초기 사회화과정을 경험한 한달 후에 실시되었다. 대학생 집단에게도 비슷한 시기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검사 결과의 분석은 성역할 정체감의 경우 전 집단의 남성성, 여성성의 평균을 산출하여 남성성점수가 평균 이상이고 여성성점수가 평균이하이면 남성성으로, 그 반대인 경우는 여성성,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성으로 분류하였다. 양 영역에서 모두 평균 이하 점수를 얻은 대상을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성역할과 관련된 다른 세가지 검사는 7점 척도에 따라 점수를 채점한 후 집단과 성별,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 과

성역할 정체감

사관생도와 대학생 집단의 반응을 기준으로 이들의 성역할 정체감을 분류한 결과 다음 표 1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사관생도는 성역할 정체감에서 남성성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성성, 여성성의 분포 순서를 보였다. 이렇게 남성성이 우세한 경향은 남녀 생도 모두에게 공통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도들의 반응을 대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성역할 정체감의 분포면에서 매우 다른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생도는 남성성이 가장 우세한 반면 대학생은 여성성, 양성성, 남성성 순의 분포를 보이며 이러한 양 집단의 차이는 카이 검증에서도 의미있게 나타났다(CHSQ=54.64 $p < 0.01$).

표 1. 성역할 정체감 분포

		성역할정체감				계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생도	남	78	30	35	41	184
	여	7	1	2	9	19
	계	85	31	37	50	203
	(%)	(42)	(15)	(18)	(25)	(100)
대학생	남	20	20	43	16	99
	여	6	53	17	25	101
	계	26	73	60	41	200
	(%)	(13)	(37)	(30)	(20)	(100)

여성의 경우 여생도는 단지 한명만이 여성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대생의 경우는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숫자가 여성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사관학교를 지원한 여성들은 비슷한 지적 수준의 동년배들과 성역할 정체감 면에 대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남녀 생도의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성' 중심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 사관학교를 포함한 군 조직이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에 입각한 행동 규범이 많다는 점에서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성통합 관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남성적인 정체감의 우세가 남녀 생도 모두가 갖고 있는 여성성을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생도의 경우 성통합 초기 단계에서 기존하는 남성 중심의 가치나 행동에의 적용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자칫 '남성화'되어가는 것이 최적의 적응상태로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 방식은 원래 성통합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성통합 과정에서는 생도들에게 우세한 남성성 이외에 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의 가치나 행동들이 발휘되고 표현되어 새로운 생도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의식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척도와 관리자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척도, 그리고 군 조직 여성 인력에 대한 척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각 척도별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성역할에 대한 태도

가정 및 직업 장면에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생도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여생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고정관념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가장 비전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역할혁신자'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표 2).

남생도는 여생도에 비해 여성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전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비교 집단의 남자대학생에 비해서는 덜 전통적인 경향을 보여 흥미롭다. 전체 생도들과 대학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생도들은 대학생보다 여성의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 남생도나 여생도가 동년배의 남자대학생이나 여자 대학생보다 비전통적인데 비해 전체적으로 대학생보다 전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숫자가 적은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표 3).

표 2. 성역할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도	남	72.8	15.5
	여	43.4	10.8
	계	70.1	17.4
대학생	남	74.2	19.4
	여	51.7	14.8
	계	64.2	21.3

비록 여생도와 남생도간에 여성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나 남자 대학생보다 더 진보적인 남생도들의 반응과 일반 대학생보다 비전통적인 생도들의 반응은 앞으로 남녀생도가 화합하여 이루어가는 성통합의 관점에서 비교적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 이외에도 성역할 태도면에서 여성과 남성간에는 뚜렷한 성차가 존재하며,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면에서 남성적이거나 양성적인 집단은 여성적이거나 미분화된 집단보다 여성의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3. 성역할태도에 대한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집단(G)	1	3504.8	3504.8	14.2**
성(S)	1	46370.5	46370.5	188.4**
성역할정체감(SI)	3	2733.3	911.1	3.7*
G×S	1	302.9	302.9	1.2
G×SI	3	2657.0	885.6	3.6*
S×SI	3	3912.4	1304.1	5.3*
G×S×SI	3	996.0	332.0	1.3

** p<0.01 * p<0.05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한 태도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한 생도들의 태도를 보면 여생도는 남생도나 대학생 집단 보다 관리자로서의 여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이들의 강한 성취 동기와 적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남생도들의 관리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긍정도는 여생도들에 비해 떨어지지만 동년배의 남자 대학생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통합 과정에서는 여생도들의 이러한 태도가 현실에서 좌절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남녀 생도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자 생도들의 태도를 좀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생도들의 반응을 대학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양 집단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여기에서도 소속 집단에 상관없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리자로서의 여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5).

또한 성역할 정체감과 성, 그리고 집단간의 상

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양성적인 정체감을 가진 여성들은 여성적인 정체감을 가진 여성보다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여성에게는 심리적인 양성성이 조직 생활에 성공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4.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도	남	91.0	13.1
	여	107.4	12.7
	계	92.5	13.9
대학생	남	85.1	19.4
	여	98.4	14.8
	계	91.6	21.3

표 5. 관리자로서 여성에 대한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집단(G)	1	83.7	83.7	0.7
성(S)	1	12858.4	12858.4	110.8**
성역할정체감(SI)	3	482.4	160.8	1.3
G×S	1	80.6	80.6	0.7
G×SI	3	1040.4	346.8	2.9*
S×SI	3	2076.9	692.3	5.9**
G×S×SI	3	170.3	56.7	0.4

** p<0.01 * p<0.05

군조직 여성 인력에 대한 태도

사관학교 여생도를 비롯한 일반 군대 조직 여성 인력에 대한 태도는 실제 성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도생활 및 임관 후 군대내 여군에 대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생도들의 반응을 보면 여생도는 앞서 제시한 관리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결과와 일관되게 군 조직 여성에 대해서도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남생도들의 반응은 여생도와 거리가 있지만 일반 남자 대학생에 비해서는 같은 동료로서 일하게 될 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전체 생도들은 대학생보다 같은 조직 내 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공통된 경험이나 목표를 지향하는 생도생활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사관학교 여생도 및 군내 여군에 대한 태도는 좀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군조직 여성에 대해서도 생도나 대학생 집단에 상관없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군조직 여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도	남	110.6	16.2
	여	141.0	15.3
	계	113.5	18.4
대학생	남	104.0	12.0
	여	121.5	16.4
	계	113.8	16.3

종합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세가지 척도에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여생도들은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가장 비전통적이며 관리자 및 군내 여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표 7. 군조직 여성에 대한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집단(G)	1	11.1	11.1	0.1
성(S)	1	25232.4	25232.4	109.9**
성역할정체감 (SI)	3	2366.4	788.8	3.4
G×S	1	3052.3	3052.3	13.3**
G×SI	3	1280.6	426.8	1.8
S×SI	3	1048.8	349.6	1.5
G×S×SI	3	572.5	190.8	0.8

** p<0.01

둘째, 남생도들은 남자 대학생보다 여성 역할에 대해 비전통적이며 관리자나 군내 여성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셋째, 소속 집단에 상관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여성 역할에 대해 비전통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여성 역할에 대해 더 긍정적이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가지 척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표 8) 남녀생도나 남녀 대학생 모두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는 관리자로서의 여성이나 군 조직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상관이 있으며, 관리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군 조직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이 앞으로 진행될 성통합에 시사하는 바는 논의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논 의

지금까지 사관학교의 성통합 초기 단계에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표 8. 여성의 역할에 대한 척도간 상관 관계

	성역할 태도	관리자 여성	군조직 여성
성역할태도		- 0.57*	- 0.34*
남생도	-	- 0.51*	- 0.22*
여생도		- 0.63*	- 0.49*
남대생		- 0.72*	- 0.60*
여대생			
관리자여성			
남생도			0.41*
여생도		-	0.59*
남대생			0.52*
여대생			0.60*
군조직여성			
남생도			
여생도			-
남대생			
여대생			

* p<0.01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이 사관학교 성통합 장면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이 우세한 생도 집단의 특성을 성통합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할 것인가와 관련된 사항이다.

아직까지 사관학교는 조직의 특성상 고정관념적인 남성적 특성이 생활적용이나 역량 발휘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실제 남녀생도를 대상으로 한 김광은의 조사(1997)에서 여생도들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에서 남성적인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적용도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관학교 이외의 일반적인 조직 장면에서도 여전히 남성적인 특징은 생활적용이나 생활만족도와 더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방희정, 1996).

그러나 현상적으로 남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이 생활적용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전적으로 남성성

만이 인정받고 적용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는 성통합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관학교에서 여생도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전적으로 기존하고 있는 남성 문화나 규범에 동화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기대한 역할은 군대가 갖고 있는 고유 속성을 살리면서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무시했거나 평가절하했던 '부드러움'이나 '사려깊은', 혹은 '세심함'같은 여성적인 특성의 인정을 통해 좀더 민주적이면서 다양한 조직변화를 시도하는 역할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성에 대한 재인식은 기존하고 있는 남생도나 남성 군인들에게도 지금까지 남성적인 특징이 주로 강조되고 인정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 표현이나 수용이 어려웠던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로 조직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통합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강조되고 적극적으로 표현된 남성성 이외에도 감추어지고 개발되지 않았던 여성성에 대한 과감한 인정과 개발을 통해 사관학교를 비롯한 군 조직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인정받고 격려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고정관념적인 여성의 역할을 넘어서려는 동기가 가장 강력할 뿐 아니라 관리자 및 군 조직내 여성 인력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생도들의 태도를 어떻게 생도생활 및 임관 후 장교 생활에서도 최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가와 관련된 사항이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인 성역할 넘어서는 진로나 직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보통 강한 성취동기와 이에 수반되는 뛰어난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는 실제 미 공사 여생도들에 대한 자질 평가나 올해 공사에 입교한 여생도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생도들의 이러한 태도가 행동

으로 표현됐을 때 얼마나 동료 남생도나 상관들이 수용하는가가 성공적인 성통합의 관건이 된다는 데에 있다. 미 공사의 경우를 보면 성통합 초기 1, 2년까지 여생도들은 그들의 뛰어난 자질 및 능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생도생활의 적용이 남생도보다 뒤지며 성취도 면에서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ited State Air Force Academy, 1984, 1992).

이러한 여생도들의 더딘 적용은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간에 남성만이 공유할 수 있는 전통을 단절시켜 버린 여생도들에 대한 동료 남생도 및 선배들의 비우호적인 태도가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남생도에 비해 사관학교를 비롯한 군 조직에 동성의 이상적인 여성 역할 모형이 없었던 점도 여생도들의 사기를 고양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생도들의 강렬한 동기나 기대가 사관학교 장면에서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하는 남생도들이 여생도를 '전통의 단절자'로 보다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전통의 혁신자'로서 보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생도들을 교육하는 부서에서도 여생도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역할 모형을 제시하여 이들의 동기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졸업 후 진로나 승진같은 제도적인 면에서 남생도와 동일한 기회와 경쟁이 보장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을 부연할 필요가 없다.

셋째, 선행 연구 및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남생도들은 동년배 남자 대학생에 비해 여생도에 대해 비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 역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앞으로 성통합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사항이다.

아직 남생도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한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본 조사가 실시되기 전 남녀 생도가 함께 받은 일명 '지옥훈련'이라 불리는 5주간의 가입교 훈련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훈련은 정식으로 사관학교를 입학하기 전 이들의 정신력과 체력을 검증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주로 체력 단련 및 군사 훈련으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힘든 훈련을 거치면서 남녀 생도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이전에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로서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에 대해 고정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도 많이 극복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진호, 1997).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미 공사 생도들의 경우도 남녀 생도가 함께 생활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여생도들에 대한 태도가 좀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목표하에 공동 체험이나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것이 남녀간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성통합의 방법적인 측면에 중요한 시사를 준다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변인 중에서 가장 일관된 경향을 보인 것은 남녀에 따른 성차였다. 즉 남성들은 그들이 생도이거나 대학생이거나를 막론하고 남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성에 비해 여성에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으며 관리자 및 군 조직 여성에 대해서도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남성은 여성만큼 문제 의식을 느끼기 힘들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관학교 남녀의 성통합 비율이 90 대 10으로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소수 집단으로 머물고 있는 한 본질적으로 대등한 남녀의 성통합이 이루어지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적어도 한 조직내의 하위 집단이 30% 이상이 되어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Kanter의 주장(1977)을 받아들인다면 사관학교내 여성의 비율은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신력 이외에도 체력이 뒷받침되는 건강한 신체가 군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천의 하나라는 점에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군 조직에 여성 비율 증가와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 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이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와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 아직 뚜렷한 결론은 얻기가 어려웠다. 생도들은 성역할 정체감과 여성의 역할 태도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의 양성성은 남성성과 동일시 되어 여성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이들의 양성성이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진보적 태도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심리적인 '양성성'의 의미가 실제 생활에서 남녀에게는 다르게 기능하는 변인임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가정은 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4년간의 성통합 과정에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태도 변화를 추적해 보면 대학생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 좀더 근거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논의는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성통합과 관련된 연구의 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몇가지 논의 사항은 사관생도들의 성통합 과정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확증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광은 (1997). *생도 생활적응 실태 조사*, 미발표 자료.
- 김진호 편 (1997). *날아라 매추리*. 시공사.
- 방희정 (1996). *성 고정관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실체*, 여성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여군학교 (1996). *여군 일반 현황*, 여군학교.
- 여성신문 (1995). 이야기 여성사-광복군 김정옥. 347-350호.
- 여성신문 (1996). *한국 여군의 오늘*, 397호.
- 오필환·김광은 (1997). *남녀 생도 통합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공군사관학교 국고 지원 과제 연구보고서.
- 임용자 (1994). *성역할 관련 요인이 여대생의 진로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조성숙 (1997). *군대문화와 남성*,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 문화연구소 출판부.
- 카플란·세드니 저 (1989). 김 태련·이선자·조혜자 공역, *성의 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탁진국 (1995). *한국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 성별, 성역할 유형 및 문화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 '95년차 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437-447.
- 헤니그·자덤 (1977). *정 형숙 역 캐리어우먼*, 홍신문화사.
- Defleur, L. B. Wood F., Harris, Gillman, D., Marshak, W. (1985). *Integration at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Problems and Issues*. USAFA.
- Holm, J. (1992). *Women in The Military: An Unfinished Revolution*, Presidio Press.
- Kanter R. M. (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Basic book Inc.
- Spence, J. T. & Helmreich, R. (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Stiehm, J. H. (1981). *Bring me and wome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USAFA (1984). "Report on the integration of women into cadet wing", USAFA.
- USAFA (1992). "Performance of women in the classes of 1980-1995". USAFA.
- Yanico B. J. (1981). Sex-role self concept and attitudes related to occupational daydreams and future fantasie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 261-269.

Sex role identity of cadets and their attitudes towards women in the early phase of sex-integration

Kwang-un Kim

Korea Air Force Academy

In 1990 the Korea Air Force Academy became sex-integrated by accepting female cade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ex role identity of cadets and their attitudes towards women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main factors of sex integra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203 cadets and 200 university students as comparison grou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sculine identity prevailed among cadets regardless of sex. Second, female cadets showed the least traditional attitude towards female sex role compared with other groups. They also had most progressive attitude towards women as manager and women in the military. Third, there wa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s the role of women between female and male cadets. However, male cadets tended to be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women than the male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details a view to diagnosis of problems and issues that can be introduced from process of sex integration in the following four years.